

# 중국 세대별 지도자들의 경제관 비교 연구

— 마오쩌둥(毛澤東)에서 후진타오(胡錦濤)까지

고정오(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

- I. 머리말
- II. 세대별 지도자들의 시대배경과 경제평가
- III. 세대별 지도자들의 경제관
  - 1. 마오쩌둥
  - 2. 덩샤오핑
  - 3. 장쩌민
  - 4. 후진타오
- IV. 세대별 지도자들의 경제관 비교
- V. 맺음말
- 참고문헌

## 주제어

중국 지도자, 경제관, 경제평가

## 한글 초록

이 연구는 인구의 거대시장을 중심으로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지금까지 배출한 4명의 최고지도자들이 어떠한 경제 가치관과 이념을 갖고 지금의 중국을 선도해왔으며 앞으로 5세대인 시진핑(習近平)은 어떤 경제 가치관과 이념을 계승하여 중국을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해 비교·연구하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평균·평등의 경제이념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지나친 평균주의와 집체주의는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덩샤오핑(鄧小平)은 선부론(先富論)과 불균등발전론의 경제이념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추진하였고 생산력을 향상시키려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민생주의 실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장쩌민(江澤民)은 덩샤오핑의 경제이념을 지지하여 삼대표론(三個代表)과 소강사회 건설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마지막으로 후진타오(胡錦濤)는 장쩌민의 삼대표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과학발전관'과 '화목사회'를 정책의 지도방침으로 내세워 당 내부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고 후진타오 노선의 실천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특히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간주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균형발전과 공동부유를 실현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빈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라는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2012년은 중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해이다. 예상외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자리를 계승하게 된다. 제5세대 지도자가 될 시진핑 역시 신개념 국가발전전략인 '포용성 성장'과 앞 세대 지도자들의 경제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산당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I. 머리말

20세기 말 이후 세계경제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중국의 부상'이다. 인구의 거대시장을 중심으로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 국가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의 미래에서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은 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도자가 가진 사상이나 가치관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세계경제를 주도한 이들의 사상과 가치관이 중국을 G2로 부상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한다. 경제정책 또한 실천 이데올로기의 구축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집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당의 지도이념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현재까지 4명의 최고지도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세대별로 1세대 마오쩌둥, 2세대 덩샤오핑, 3세대 장쩌민, 4세대 후진타오이다. 즉 4명의 지도자가 중국을 이끌어왔고 이끌고 있다. 먼저 1세대 지도자인 마오쩌둥은 건국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중일전쟁을 겪으면서 국민당과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공산당과 함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철저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국가를 운영했다. 그러나 평균·평등의 경제이념을 가지고 실시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실패로 상당수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2세대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덩샤오핑이다. 덩샤오핑은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용주의를 근본으로 삼아 선부론과 불균등발전론의 경제이념을 가지고 정치·경제체제의 개혁으로 시장경제주의 체제를 도입해 혼합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3세대 지도자인 장쩌민은 삼개대표론 사상을 주창하며 경제성장을 계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덩샤오핑과 장쩌민 시기에 이

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부의 양극화, 부정부패, 실업난 등 심각한 성장의 폐해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2003년 후진타오는 국가 주석에 취임했다. 후진타오는 과학적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국가 경제이념으로 설정하고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한편 2012년 임기가 끝날 예정인 후진타오에 이어 다음 주석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진핑은 포용성 성장을 중국의 새로운 경제사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어떠한 가치관과 이념을 가지고 지금의 중국을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 5세대인 시진핑은 어떠한 가치관과 이념을 계승하여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해 연구하려 한다.

## II. 세대별 지도자들의 시대배경과 경제평가

1949년 중국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소련식 계획경제를 도입하였고 1953년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발전에 운용하였다. 소련 볼셰비키의 혁명이론은 당시 러시아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레닌의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것이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이 러시아적 상황에 맞추어 급진적으로 변용된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경제이론을 도입하고 경제발전의 실패와 좌절 등을 경험하면서 당시 신(新)중국의 상황에 적합한 경제발전 정책을 학습해 나갔다. 1979년까지 마오쩌둥 시기에 중국에서 실행되었던 경제발전 정책은 소련 모델(Soviet Model)을 적용한 계획경제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고도의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도는 제도적으로 공유·공영, 중앙계획, 명령지도, 고정가격제도를 실시하며 정책적으로 고축적, 고성장, 저소비, 저임금, 중공업 우선정책을 실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경제체제는 제도와 정책적으로 소비자 주

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단지 계획자 주권만이 강조되는 형태로써 생산력이 낙후된 국가에서 실현하기에는 강제성과 방대한 행정체계의 수립을 수반해야 되는 선천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중국으로서는 정치·외교·국방 등의 관계에서 취한 소련 일변도의 경향이 중국보다 선진적인 소련의 경제정책 모델의 채택이 경제 분야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

**마오쩌둥 :**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경제정책의 변천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① 과도기 총노선 시기(1953~57)로 불균형 발전의 소련 모델을 적용 ② 대약진운동 시기(1958~60)로 마오쩌둥의 좌경적 모험 노선 ③ 제1차 조정정책 시기(1961~65)로 흐르시초프 모델의 수정주의 노선 ④ 문화대혁명 초기(1966~70)로 마오쩌둥 노선 부활 ⑤ 제2차 조정정책 시기(1971~75)로 수정주의와 마오쩌둥 노선의 종합 ⑥ 문화대혁명 말기(1975~76)로 4인방의 극좌노선 ⑦ 양약진 시기(1977~79)의 제3차 조정정책 시기로 수정주의가 부활한 것이 그것이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경제는 계획경제 자체가 계획에 의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원인으로 변동하는 각종 경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한 방대한 행정 시스템이 경제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약점 이외에도 중국 자체의 정확한 경제정책 방침의 미흡 및 계속되는 시행착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좌·우파 투쟁 등으로 인해 상당히 낙후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건국 이후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시장을 포함하여 강력한 정부가 존재하는 경제발전의 초기 조건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데올로기의 중시, 자력갱생 경제발전전략으로 정치적·경제적 침체를 겪어 실질 경제성장은 크게 하락하였다. 마오쩌둥 시대의 경제평가에 사용하는 국민소득 지표로는 사회총생산액과 국민수입 지표가 있는데 주로 부가가치 개념인 국민수입을 사용하였다. 국민경제 회복기에는 국민수입 총액이 1949

년 358억 위안에서 1952년 589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8.1퍼센트에 달했다.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한 제1차 5개년 계획(1953~57) 기간에는 연평균 8.9퍼센트의 성장으로 1957년에는 908억 위안을 이룩했다. 1인당 국민수입도 1953년 122위안에서 1957년 142위안을 기록했다. 조속한 공업화와 이념을 중시한 1958~78년 기간 중에는 좌·우 경제노선의 정치파동을 겪고 2차례(1960~62년과 1967~68년 기간 중)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국민수입 총액은 1958년의 1,118억 위안에서 1978년 3,010억 위안으로 연평균 5.1퍼센트의 성장률을 보였다. 20년(1958~78) 동안 1인당 국민수입은 171위안에서 315위안으로 연평균 3.1퍼센트의 소폭 증가로 실질성장의 한계를 보여주었다.<sup>1)</sup> 한편 마오쩌둥 시대(1952~78)의 아시아 1인당 연평균 성장률은 일본 6.7퍼센트, 타이완 6.3퍼센트, 한국 5.5퍼센트를 보였다. 즉 계획정책전략의 성과는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보다 떨어져 실패로 끝났다.

**덩샤오핑 :**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중국 지도층은 경제발전 속도와 범위의 문제에 대해 대립과 갈등 관계가 지속되었다. 마오쩌둥의 정책 아래에서는 행정적 명령을 통한 계획된 범위 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고정시키고 시장의 중요성을 무시하였으며 계획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차질을 초래하여 생산품의 공급부족 혹은 과잉상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사회주의와 상품경제를 상호 대립·배척하고 종래의 관념을 타파하여 사회주의 본래의 공유제(公有制)를 기초로 새로운 계획상품경제론이 제기되었다. 덩샤오핑 경제이론의 핵심은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통해 신(新)중국의 지도자로 재등장한 덩샤오핑은 10년 동란의 문화

1) 中國統計年鑑, <http://www.stats.gov.cn/tjsj/ndsj/>.

대혁명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생산력과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발전시키고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의 영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신중국이 1980년대 이래로 추진한 중국 현대화 건설이념에는 덩샤오핑의 현대화 사상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현상은 개혁개방의 천명,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 중국공산당 14전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등 일련의 조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덩샤오핑 시기의 중국경제정책의 변천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1979~83년) 농업 개혁의 시기로 농촌경제의 변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농가생산 책임제로 발생한 잉여노동력을 향진(鄉鎮)기업으로 흡수함으로써 실업 문제 일부를 해결하는 동시에 농촌 공업화의 기틀을 다졌다. ② (1984~88년) 도시 상공업 개혁 시기로 농촌경제 개혁의 성과와 일부 지역의 시험적인 개혁조치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자 중국의 개혁은 도시 상공업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1984년 10월 중국은 도시 상공업 중심의 경제체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③ (1988~91년) '치리정돈'(治理整頓)의 시기로 경제체제 개혁이 비록 국민소득의 증가와 농촌의 변형 및 대외무역의 확대 등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급속한 공업 성장과 인플레이션, 소득분배의 불균형 및 각종 권력형 부조리와 비리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에 중국 정부는 경제환경에 대한 정리, 경제질서에 대한 정돈을 기치로 하는 긴축정책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경제 구조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④ (1992년 이후) 개혁의 심화와 개방 확대의 시기로 1992년 초 중국은 '치리정돈'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따라 계속해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것을 천명하였다. 덩샤오핑은 남부 지역을 순시하면서 개혁개방의 심화와 확대를 독려하는 '남순강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는 오늘날 중국이 추진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탄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이론에 의해 중국의 경제는 보

다 시장경제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국유기업의 개혁 및 정부의 거시적 조절을 기초로 경제운영 구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개혁개방정책의 실시 이전에 중국은 자력갱생 원칙을 강조하면서 자급자족 경제를 고취하였으나 덩샤오핑 시기 대외개방정책은 자력갱생 원칙을 탈피하여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의 대외개방은 크게 기술·자본의 도입 및 대외무역의 확대라는 두 분야로 발전해왔다. 이 시기에 국내총생산은 연해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특혜와 투자편중 및 외자집중의 결과 1980년 4,470억 위안에서 1992년 2조 6,635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6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해지역의 1인당 국민수입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379억 위안, 1,155위안으로 연평균 9.7퍼센트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 차관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 각 부문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우선 차관은 1985년 총 재정수입의 1.6퍼센트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에는 5.1퍼센트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공업생산에서의 비중은 1.2퍼센트에서 6.6퍼센트로 증가하였고, 고용은 1985년 0.1퍼센트에서 1992년 1.0퍼센트로 증가하여 118만 명을 고용하였다. 이렇듯 덩샤오핑 시기에 과감한 개혁개방을 추진한 결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한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경제대국으로 등장하였다.

**장쩌민:** 1997년 덩샤오핑 다음으로 '장쩌민'이 정권을 위임받는다. 하지만 비약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보다는 자본주의적 문제점들이 야기되기 시작했다. 장쩌민은 이러한 불안 요소를 안정시키며 덩샤오핑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중국을 이룩하고자 했다. 장쩌민 시대의 경제정책 변천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① (1992~97년) 신권위주의 정권과 개혁개방의 확대로 심화된 시기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론과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추진, ② (1997~2002

년) 소강사회(小康社會)와 부강한 중국 건설을 위하여 경제발전 과정의 사회균형 및 모순과 갈등이 대두되었는데 서부개발론 등 균형발전론을 제기하였다. 장쩌민은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과 원가 등을 결정하고 기업의 생산원가와 금융이 비(非)시장경제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환율은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시하였다. 즉 정부 업무가 계획경제 업무로부터 시장경제 업무로 변화되었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이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조성되었다. 중국의 비(非)국유경제 부가가치액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53.57퍼센트에서 2001년 63.37퍼센트로 증가하였고 시장경제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어 금융시장은 갈수록 완비되었으며 인력시장의 발전도 가속화되었다. 또한 기술시장 및 정보시장도 점차 형성되어 갔다. 장쩌민은 '삼개대표사상'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새로운 사회경제정책을 모색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첫째,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 자원 배분 메커니즘의 전환, 둘째, 공유제로부터 사유제로의 소유제 구조의 전환, 셋째, 폐쇄경제로부터 개방경제로 대외관계체제의 전환을 들 수 있다.<sup>2)</sup> 즉 동부지역의 주도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서부 대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 공업지역인 동북지역을 부흥시키며 중부지역의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아울러 도시화 과정 속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였다.<sup>3)</sup> 이 시기 중국경제는 1992년 14.2퍼센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7년 동안 감소세

2) 서석홍, "소유제개혁과 비국유기업의 발전", 『현대중국경제』(서울: 교보문고, 2004), p. 227.

3) 김홍규, "중국공산당 제16기 5중전회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5), p. 6.

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둔화에서 벗어나 2002년 국내총생산(GDP)은 10조 2,398억 위안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8.0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1차·2차·3차 산업의 GDP 비중을 보면 각각 14.5퍼센트, 51.7퍼센트, 33.7퍼센트를 점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전체 GDP의 8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차·3차산업의 성장률이 각각 9.9퍼센트, 7.3퍼센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2001년 2월 WTO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 확산에 대한 기대로 실질 투자액은 12.5퍼센트 증가하였다.<sup>4)</sup> 덩샤오핑에 이어 장쩌민 시대에도 추진되었던 경제성장정책은 중국을 크게 발전시켰지만 그후부터 성장의 폐해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발전 정책결정에 대한 추천과 평가에서 장쩌민을 중심으로 하는 제3세대 엘리트 지도부가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다.

**후진타오:** 불균형적인 성장으로 얻어낸 경제적 풍요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투자 중심의 경제적 사고는 인간 경시풍조를 야기했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경제발전으로 상당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부정부패와 실업난 등 심각한 성장의 폐해가 동시에 나타났다. 후진타오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2003년 4세대 지도자로 취임을 했다. 그는 2002년 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은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국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공정·공평, 빈부격차 해소 등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후진타오 시대의 경제정책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① 공부론(共富論), ② 전략으로 그간 동부 연안지역에만 치중되어 성장을

4) 박상수, "중국경제의 세계화와 거시경제의 변화", 『현대중국경제』(서울: 교보문고, 2004), p. 127.

보완하기 위해 동북 3성과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는 균형발전론, ③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에 피해를 주는 산업은 상당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친환경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④ 중국의 성장동력이었던 인진래(引进来, 대내 유치)를 줄이고, 2007년 전인대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개방영역을 확대하여 개방 구조를 최적화하고 개방의 질을 높여 개방형 경제체제를 보완할 것을 언급한 국외투자자 관련된 주출거(走出去, 국외투자 장려), ⑤ 내수경제 확대와 조화는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빈곤경제학의 핵심인 농업·농민·농촌의 진흥을 위한 삼농(三農)정책을 펼쳤다. 개혁개방으로 벌어들인 국가수입을 농민들에게 가전제품을 보급하거나 의료와 교육 등의 복지 분야에 투자한 결과, 농촌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가계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켰다.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경제는 2004~10년까지 약 10.8퍼센트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4년 GDP 총액은 15조 9,587억 위안, 1인당 GDP는 1조 2,336억 위안으로 2010년 GDP 총액은 39조 7,983억 위안, 1인당 GDP는 2조 9,992억 위안으로 성장하였다. 중국경제의 원동력으로는 높은 투자율, 풍부한 노동력 공급과 인적 자원의 투입,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FDI 유치, 기술 개발 장려 등으로 생산성 향상과 소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후진타오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개의 중심인 경제발전'과 2개의 기본 출발점인 개혁개방을 중심으로 중국의 4대 견지인 ①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 사상, ② 공산당 영도, ③ 무산계급 전제정치, ④ 대동사회를 계속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1개의 중심과 2개의 출발점을 토대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해 나갔다. "2020년 1인당 국내총생산을 2000년의 4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중국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성장의 폐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소강사회로 나아

가고자 했던 후진타오는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2012년 올해, 주석의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 III. 세대별 지도자들의 경제관

#### 1. 마오쩌둥

마오쩌둥 시기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마오는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오쩌둥은 농민 등 인민의 혁명적 자발성에 근거하여 혁명을 수행해왔으며 강한 인민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또한 끊임없는 혁명을 통해 관료에 의한 점진적이고 사려 깊은 분절적 정책 결정 대신 동원을 통해 대담하고 총체적이며 유도 피아적인 정책 결정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당내가 동요되고 마오쩌둥의 권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경제 문제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한 적이 있었다. 혁명이나 유격 전에는 경험도 풍부하고 일가견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경제건설은 생소한 만큼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당 간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sup>5)</sup> 이렇듯 마오쩌둥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경제발전의 혜택이 인민에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마오쩌둥은 사상적으로 인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스탈린주의적 발전전략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급속한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자본과 노동을 공업 분야에 집중하고 기본적으로 고축적, 저소비 전략을 추구했다. 경제정책은 인민의 일반적인 소비 억제와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불만을 심화시켰다. 양적인 경제성장의 강조는 경제

5)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서울: 나남출판, 1998), p. 141.

발전의 질적인 면을 경시함으로써 평균주의와 집체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마오쩌둥의 경제 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평균주의라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분배나 평가에서 노력의 질과 양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곤궁하더라도 공평하게”라는 뜻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마오쩌둥은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 건설이념을 중요시했다. 그는 분배상의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한 ‘평등주의적’ 분배를 교육하고 활용하였다. 이러한 교육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의 적극성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더 나아가 마오쩌둥은 사회주의에 대한 적극성과 집체경제의 우수성, 자력갱생의 정신을 동원한다면 중국 실정에 맞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농촌과 도시,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40년대 말, 중국 산업 및 교통의 약 70퍼센트 이상이 동부 연해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농촌과 도시, 농민과 자본가들의 격차가 이미 심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오쩌둥은 이런 불균형발전을 균형발전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농촌의 생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규모를 대규모로 전환하면 생산력이 증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중의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집체주의 사상을 강화하는 교육을 중요시하였으며 소련과 대립 이후 중국식 사회주의 핵심 원칙인 자력갱생만을 강조하여 국민분업을 통한 경제기획의 획득은 상실하였다. 이런 정신은 후에 대약진운동으로 이어졌고, 1965년까지 자력갱생의 정신은 계속해서 강조되었으며 각 지역별로 독자적인 경제적·사회적 자립체제 건설이 진행되었다. 이로써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은 평균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비슷한 산업구조와 자급자족적인 경제와 사회 체제를 유지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였으나 비교우위나 효율적인 자원의 배치 및 교환 없이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었다.

마오쩌둥 사상 → 마르크스-레닌주의 원리 + 중국 혁명 및 건설의 실천

## 2. 덩샤오핑

덩샤오핑은 당·정·군에 걸쳐 다양한 정치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국가 경영에 대한 인식과 통찰에서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 덩샤오핑은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중국 인민들이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시키려 했다. 덩샤오핑은 “왜 시장을 말하면 자본주의이고 계획을 말하면 사회주의인가? 계획과 시장은 방법일 뿐이다. 경제발전이 좋다면 어느 것이든 이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결합한 특색 있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구축하였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중국 현대사에 영향력을 가진 대립적 사고행동체계였으나, 덩샤오핑은 과감하게 그 둘을 결합시킴으로써 중국 인민에게 경제적 유인을 가져다 주어 인민들이 일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흑묘백묘론(黑猫白猫)은 선부론과 함께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성장정책을 대변하는 경제이념이다. 이것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黑猫白猫: 不管黑猫白猫抓耗子就是好猫)는 의미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흑묘백묘론이 등장한 것은 1979년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한 뒤였다. 흑묘백묘론에는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경제적인 면에서 자본주의를 일부 받아들여겠다는 덩샤오핑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즉 정경분리를 통해 경제 분야에 실리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으로서 중국식 시장경제체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덩샤오핑이 흑묘백묘론과 함께 주창한 선부론은 “부유할 수

있는 사람부터 부유해져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동부의 특구와 해안지역부터 부유해지고 이어 서부와 내륙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 논리가 되었다. 이 이론은 경제가 낙후된 상태에서 분배보다는 성장에 역점을 둔 논리로 평등주의를 타파하고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덩샤오핑 사상 → 마오쩌둥 사상과  
실사구시, 해방사상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현

### 3. 장쩌민

『장쩌민문선』(江澤明文選)에서 삼개대표(三個代表)는 경제성장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경제이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장쩌민이 주창한 삼개대표란 첫째, 당은 선진적 사회생산력을 대표해야 하고, 둘째, 선진문화로의 전진 방향을 대표해야 하며, 셋째, 모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이 이념은 장쩌민 집권 당시 제15차 당대회 보고내용 가운데 “중국의 경제개혁정책은 무엇보다 덩샤오핑의 개혁사상에 힘입은 바가 크고, 덩샤오핑 개혁사상은 실사구시·해방사상 등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로 집약될 수 있다”면서 당의 지도이념으로 확정했으며,<sup>6)</sup> 경제발전의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보다 제도적·법적 장치를 강화해 나갔다. 또한 제14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세계는 개방적인 세계이고 각국 간의 경제, 과학, 기술의 교류와 연계는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으며 어느 국가도 세계경제체제 밖에 고립된 상태에서 경제의 신속한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없으므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상호 협력·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일구양제(一球兩制, 한 지구에 두 종류의 제도)는 공통된 인식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즉 경제성장을 위한 외교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 제16차 당대회에서는 주요 지도사상으로 당장(黨章)에 삽입된 ‘삼개대표’ 이념은 공산당의 경제발전과 함께 대두된 다원화된 사회계층, 특히 새로운 엘리트로 등장하고 있는 사영 기업주와 지식인을 적극적으로 당 내로 편입시켰다. 이는 다원화된 사회계층 구조 변화에 맞게 중국공산당의 사회적 기반을 확장시키고 또한 일당지배의 지속과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개방정책과 경제발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이론과 실천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지도부와의 결집이 나타났고 국가의 통일된 계획과 지도 아래 지역에 알맞는 합리적인 분리와 각자의 장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합리적인 안배와 발전을 촉진했으며 농업, 기초공업과 기간산업 그리고 3차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강조하였다. 중국공산당 제14차 4중전회 이후 13년간 장쩌민 중심의 영도세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중국의 국력 신장,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으로 인한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 WTO 가입 이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처, 국제 재정수입의 대규모 증가,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 등이 지난 시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근거이다.

장쩌민 사상 →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과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덩샤오핑 사상 + 확립의 실현

6) 江澤民, “高舉鄧小平理論偉大旗幟—黨15大報告”, 『人民日報』(1997912).

#### 4. 후진타오

후진타오는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무엇보다 중시하였으며, 특히 경제 방면에서 질적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는 당 중앙의 과도한 권력기반 강화에 집착하지 않고 실용적 리더십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집단체제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후진타오는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꾸준히 자기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즉 전형적인 기술관료형으로 경제성장과 대규모 기술 프로젝트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

첫째, 화해사회론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과 중국식 사회주의, 삼보주(三步走) 전략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이념이다. 화해사회론이란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중국의 56개 민족 전체가 평등과 조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또한 화해사회이념은 공유제와 사유제의 협력 발전을 주요 축으로 하여 공유제는 유지하되 다양한 소유제도를 병행·발전시켜 나가자는 전략이다. 그리고 국내총생산의 양적 성장에 의존하기보다는 개혁과정에서 국민들이 사회적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과학적 발전관은 화해사회론의 전제조건이며 중국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물이기도 하다. 과학적 발전관과 화해사회의 관계에서 과학적 발전관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전제 아래 물질적 기초가 마련되고 그 기초 위에 화해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 과학적 발전관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은 지속 가능한 발전관, 인간 본위주의 발전관, 균형발전관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관은 인구·자원·환경·과학기술·사회 등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인간 본위주의 발전관은 인간의 기본적인 소질 제고

와 지식 창조를 통해 변화된 시대의 경제적 요구에 적당한 모델을 창조하는 것이다. 균형발전관은 선부론에 입각하여 경제성장의 성과는 인정하되 그로 인한 폐해를 동시에 직시하고 지역과 계층 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공부론은 선부론을 승계한 논리로 공공의 부(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부론은 효율을 중시하던 선부론과 달리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고려하거나 공평 위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가 축적한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쟁할 기회를 공평하게 갖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지금까지 경제성장과정에서 경쟁에 참여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았고 소수의 선택받은 지역, 계층, 부문에 편중됐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 가능한 발전관에 입각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후진타오 지도체제의 과제는 경제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사상이념의 재해석, 재적용을 수용하되 그것이 야기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2004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된 헌법에 의하면 제11조 2항에 비(非)공유제 경제발전을 장려, 지지, 인도한다고 하고 있고, 제13조에는 국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받지 않는다는 것과 제14조에 건전한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한다고 되어있다. 이 헌법 규정은 모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더 잘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고 사회주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sup>7)</sup>

	마르크스-레닌주의	화해사회론
후진타오 사상	→ 마오쩌둥 사상	+ 과학적발전관
	덩샤오핑 사상	공동부유론

7) 김소중, 『사회주의 본질: 그 특징의 변화와 전망. 중국을 정복하자』(대전: 배재대학교출판부, 2005), p. 470.

#### IV. 세대별 지도자들의 경제관 비교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의 경제관을 비교·분석해보면, 이들에게 공통된 사상이자 원리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각 지도자들이 세대별로 정권이 교체되고 위임받으면서 이전 지도자들의 사상을 계승하고 차기 지도자 본인의 사상을 결합하여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의해 중국 사회주의의 거대한 물결과 방향을 바꾸어놓았다. 또한 1세대부터 4세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경제관의 공통점을 보면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주의란 어떤 고정된 모델이 아니라 각국의 실제 상황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진리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현대 중국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은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는 곧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진리와 중국의 실제상황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중국의 현대화 노선을 설정하는 기초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를 건설하는 기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정권을 위임받은 전세대의 경제적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역설하지 않았으며 그 시기의 상황에 맞게 경제적 사상을 계승하고 유지하되 경제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사상이념의 재해석과 재적용을 수용하고 그것이 야기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마오쩌둥 통치 시기에는 정권의 정당성이 사회주의 혁명이념을 구현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평등주의에 근거했으며, 덩샤오핑과 장쩌민 통치 시기에는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균형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는 장쩌민의 '삼개대표'를 대신하여 중국의 소강사회 건설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말하는 경제관의 차이점을 보면 마오쩌둥의 관

심은 정치에 있었다. 그가 읽은 책과 그가 한 일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벗어나지 못했고 정치와 경제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도 정치를 우선시켰으며 경제는 뒷전이었다. 감정적으로 경제는 정치를 위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제8차 전당대회 때 이성적으로 업무의 중심을 경제건설에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생산력 발전에 힘썼다. 하지만 1959년 그의 주의력은 다시 반(反)우경운동으로 몰아갔다. 이로 인해 국민경제의 균형이 깨지고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등 고난을 겪게 되었다. 그의 저서를 보더라도 『10대 관계를 논하다』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를 언급한 책은 없었다. 그는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편애로 정치적 수단으로 경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덩샤오핑의 관심은 경제에 있었고 모든 정책 결정은 경제건설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발전이야말로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건설이라는 중심을 놓아서 안 된다"라고 하였으며,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견지"의 기본노선을 지켰다. 톈안문 사태 이후 당 내외에는 일부 의문이 나타났는데, "경제건설 중심에 대한 강조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덩샤오핑은 명확하게 "당의 기본노선은 동요될 수 없고,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현재까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덩샤오핑의 당시 견해가 정확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덩샤오핑이 경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중국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식(食)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부유부강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덩샤오핑은 "중국은 반드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덩샤오핑 경제사상의 가장 함축된 표현이면서 중국 인민에게 남겨준 가장 고귀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장쩌민은 공산당 사상을 가진 가족의 영향과 부유한 성장과정, 다

양한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이후에 공산당 정권의 성장에 기여했다. 그는 기술만이 중국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실리적인 성격과 현실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중국을 진정한 개방화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 또한 수준 높은 소강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진보적인 과학과 조화로운 사회는 경제발전에 기초가 된다고 하면서 삼개대표론과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론, 중화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지도체계와 사상을 유지하면서 연경화를 주장해왔고 덩샤오핑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중국의 각종 경제제도의 개혁에 속도를 가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장쩌민 시대의 경제발전은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엄청난 사회적 불공평과 생태환경 파괴 등 미래의 생존자원 소모를 대가로 한 단편적인 발전이었다.

후진타오는 20세기 중국의 지상과제인 부국과 강국을 달성했다. 후진타오는 혁명가나 정부 고위관료 집안 출신도 아닌 평범한 가정의 자녀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최고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어떤 계파의 색도 강하게 풍기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중국경제를 이끌었다.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론을 경제이념으로 강조함으로써 중국식

#### 세대별 지도자들의 경제관 비교

지도자	정책결정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경제이념
마오쩌둥	개인적 리더십 대중동원	극좌노선 계급투쟁 의 정치우선주의	사회주의 노선 계획경제	평균 평등
덩샤오핑	집단지도체제 전문가 엘리트 중심	사상해방 생산력 중심 실용주의	계획적 상품경제	선부론 불균등발전론
장쩌민	집단지도체제 전문가 엘리트 중심	세계화와 중화민족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삼개대표론 소강사회 건설론
후진타오	기술관료	중화민족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화사회론 공동부유론

사회주의의 연착륙을 단행하였다. 후진타오는 선부론을 탈피해 평등과 균형발전을 강조한 조화로운 사회를 주창함으로써 사회주의를 현실화시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강조하여 에너지 효율과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계층 간, 소득 간 격차를 줄이는 데도 노력을 하고 있다.

#### V. 맺음말

중국 역사상 개인의 절대적인 권위가 없었던 시대에는 중국이 분열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킨 전례가 없었다. 1949년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된 이래 4세대에 걸쳐 진행되어 오면서 그들 간의 차이와 효율성이 오늘날 중국을 건설해온 것은 물론 국제경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마오쩌둥은 극좌노선과 계급투쟁의 정치우선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중국 현대화까지 혁명적 방식으로 추진하려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킨 대표적인 예가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라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평균, 평등의 경제이념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지나친 평균주의와 집체주의는 경제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덩샤오핑은 선부론과 불균등발전론을 경제이념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추진하여 생산력을 향상시키려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민생주의 실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경제이념을 지지하여 삼개대표와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경제이념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는 덩샤오핑의 영향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다. 아울러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덩샤오핑이 남긴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진타오는 조화사회론과 공동부유론의 경제이

념을 가지고 인간 본위주의 원칙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조율하면서 경제발전방식을 전면시켜 경제안정 속에서도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기에 노력하였다. 하지만 빈부격차와 도농 간 격차는 후진타오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오늘날 세계 양대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경제성장의 난제들은 중국의 사회통합력을 저해시키고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2012년은 중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해이다.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자리를 계승하게 된다. 5세대 지도자가 될 시진핑 역시 신개념 국가발전전략인 '포용성 성장'과 앞 세대 지도자들의 사상과 이념을 기본으로 정치, 경제 모두 점진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산당의 방침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소중, 『사회주의의 본질: 그 특징의 변화와 전망, 중국을 정복하자』(대전: 배재대학교출판부, 2005).
- 김홍규, 『중국공산당 제16기 5중전회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5).
- 런즈추·윈쓰용(임국웅 옮김), 『대륙을 질주하는 검은 말 후진타오』(서울: 들녘, 2004).
- 모택동(정차근·김정계 옮김), 『모택동 사상과 중국 혁명』(서울: 평민사, 2008).
- 박상수, “중국경제의 세계화와 거시경제의 변화”, 『현대중국경제』(서울: 교보문고, 2004).
- 박종귀, 『마오쩌둥의 인물평』(과주: 한국학술정보, 2007).
- 서석홍, “소유제개혁과 비국유기업의 발전”, 『현대중국경제』(서울: 교보문고,

- 2004).
-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서울: 나남출판, 1998).
- 우밍(송삼현 옮김), 『시진핑 평전』(과주: 넥서스, 2009).
- 유신일, 『중국 공산당의 과거·현재·미래』(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1).
- 한홍석, 『강택민 시대의 중국』(서울: LG경제연구소, 1997).
- 江泽民, “高舉鄧小平理論偉大旗幟—黨15大報告”, 『人民日報』(19970912).
- 白永秀, “鄧小平經濟理論的幾個基本問題”, 『榆林高等專科學校學報』(2000).
- 高林远, 『論鄧小平經濟思想』(四川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4).
- 卢昌军, 『鄧小平·毛澤東對外開放思想比較研究』(華中師範大學, 2008).
- 郭玉福, 『建國後毛澤東農業發展思想研究中共中央黨校』(1996).
- 陆云彬, 『鄧小平經濟思想研究述評』(江西社會科學, 1992).
- 李雅儒, 『鄧小平的經濟發展戰略觀及其特色』(教學與研究, 2000).
- 李高东, 『胡錦濤農業農村發展思想論析』(雲南財經大學學報社, 2009).
- 李鑫, 『經濟動向與經濟政策』(農場經濟管理, 2010).
- 李清, 『學習和研究鄧小平經濟思想的新成果—簡評 鄧小平經濟思想研究』(青海社會科學, 1995).
- 刘吴, 『中國經濟思想史研究的幾個理論問題』(社會科學戰線, 1999).
- 刘军, 『鄧小平經濟理論體系研究綜述』(韶關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0).
- 苗守华·郭俊丽, 『論鄧小平經濟思想的基本特點』(青海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994).
- 目笼, 『鄧小平經濟思想研究綜述』(湖北社會科學, 1991).
- 潘勇, 『論江澤民經濟倫理思想的基本特色』(黨史文苑, 2004).
- 任立新, 『毛澤東新民主主義經濟思想及其嬗變研究』(河北師範大學, 2008).
- 王兆响, 『中國社會主義經濟倫理的三大轉向與當代建構』(曲阜師範大學, 2011).
- 严清华·吴传清·景新华, 『中國經濟思想史學科建設的新使命』(東南學術, 2002).
- 张春荣, 『毛澤東國情思想及其當代價值』(河北大學, 2010).
- 张俊国, 『毛澤東國家利益觀研究』(河北師範大學, 2007).
- 张长明·彭志红·李现, 『鄧小平經濟哲學思想研究的現狀及展望』(湖南農業大

学学报(社会科学版), 2006/05).

张树新, 『江泽民经济思想研究述评』(贵州社会科学, 2007).

张柱山, 『邓小平经济思想是毛泽东经济思想的继承和发展[J』(安阳师范学院学报, 2006).

## Comparative study on the Chinese view of the Economic under 4 successive Leaderships: of Mao, Deng, Jiang and Secretary Hu, 1949~2010

Jung O Ko(InHa University)

### Abstracts:

This study analyses and compares how emerging China has gained a foothold from a large market of population, as one of the world's greatest economy change, it has been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leader's role under communist political system, produced and led by 4 Paramount leaders with their own economy values and ideologies since it's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st Oct 1949 and also how the 5th generation Xi Jinping will lead China to the greatest economic power with such kinds of economy values and ideologies adopted.

Mao Zedong was trying to achieve the economic growth through economy ideologies of average and equality. However excessive collectivism and equalism lessen the economic efficiency.

Deng xiao ping carry forwarded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through Getting rich first theory and Uneven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laimed to advocate a China style socialism by increasing productivity and achieved principles of People's Livelihood realization through the rapid economic growth. Jiang Zemin achieved the successful economic growth through Deng xiao ping's economic concept of 3 representational theories and well-off society theory. Lastly, Hu Jintao practiced harmonious society theory and joint wealthy theory for concepts of economy under man-centered principle, seek sustainable growth and made the way of economic growth change ableness, put effort to achieve stable and comparably fast economic growth. Nevertheless the issue on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has risen. In 2012, it is the year for the political power replacement in China. Without any unexpected situation, Xi Jinping, a current Chinese National vice premier will succeed the Hu Jin-tao, current Premier's pos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continuously whether the 5th future leader of China, Xi Jinping will also take the new National growth strategy of 'catholicity growth' and communists' policy to make gradual reformation based on previous generation leaders' ideologies.

Keywords:

China's Leaders, View of the Economy, Economic Appraisal